

“나라 빼앗긴 부끄러운 역사 잊지 말자”

광주·전남 '경술국치' 109년 추념 광복회, 추념식·결의문 낭독 국제제·서석중 등 계기교육 교육청, 조기계양 의미 되새겨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식에서 학생들이 대한독립을 외쳤던 열사들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되새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 한 '한일합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일합방' (韓日合邦), '한일합병' (韓日合併) 등의 용어를 붙였으나,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 (庚戌國恥)라 부른다.

광주·전남 교육현장에서 경술국치 109번째 해를 추념하고,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전남도교육청은 29일 경술국치일에 맞춰 무안 남도소리유평터에서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전주조사를 통해 153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 석물, 교표, 친일음악 악기 작곡 교과, 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생활 규정 등 168건을 발표했다.

일제 양식 총합판, 석등 등 석물 33건을 비롯해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음악가 등이 작곡한 교과 18건, '아시아 동방의 나' '애국 학도' 등 일제 찬양이 의심되는 가사가 들어간 교과 40건, 표절 등이 의심되는 교과 37건도 발견됐다.

7개 학교에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전범기인 육일기 문양의 교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지동맹', '동맹휴학', '불온문서' 등 일제식 용어를 쓴 학생 생활 규정은 33건이었다.

또 목포 문태고 역사통일 동아리 '집현전' 학생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주제로 경술국치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웹포스터를 제작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운동장에서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해남고등학교와 나주라온초등학교에서도 경술국치 관련 영상 시청 등 계기교육이 진행됐다.

광주에서도 계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추념행사가 열렸다.

광주 광덕고는 이날 광복회 광주·전남지

부와 교내 강당에서 경술국치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학생 대표단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성명서를, 광복회 광주·전남유족회 대표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경술국치 잊지 말고 친일세력 척결하자', '일제(日製) 사용은 일제(日帝)로의 회귀' 등이 적힌 손팸막을 들고 불매운동 등 결의했으며, 독립군가를 부르고 대한 독립 만세를 삼창하기도 했다.

금호중앙중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태극기에 손바닥 도장을 찍는 등교길 캠페인을 벌였다.

이밖에 국제고는 교내 강당에서 빛고개 역사교사모임 대표인 노성태 수석교사가

전교생과 전 교직원들이 참여한 계기교육을 진행했고, 풍광고는 교육 자료인 '잊지 말자 경술국치'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석중도 이날부터 30일까지 2일간 2학년 160명·3학년 166명이 참여하는 교육을 하고, 동신여자중과 진흥중 학생회, 전남공고, 광주제일고 등 광주지역 초·중·고교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등 계기교육이 이뤄졌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들도 조기 계양을 하며 경술국치일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를 되새겼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5월 단체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하라”市에 촉구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9일 옛 광주적십자병원 공개매각(광주일보 2019년 8월28일자 6면)에 따른 광주시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일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적지”라면서 “특히 5월 21일 오후 도청 앞 집단발포에

의한 수천명의 사상자들이 이곳을 찾았고, 이후 현열행렬이 가장 길게 줄을 서서 피를 나는 광주공동체가 시작된 장소”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광주라는 도시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라며 “광주시는 마땅히 적십자병원과 같은 사적지를 보존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빅데이터 축제대상 혁신경영상

'7080' 향수를 소환한 광주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가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혁신경영상을 수상했다.

광주 동구는 29일 서울 KT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혁신경영상을 받았다.

시상을 주관한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은 관광·소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1290여개 축제를 평가한다. 동구는 수상을 기념해 서울역 광장에서 SNS 홍보단의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였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전남 유·초·중등생 1년새 1만5370명 감소

전남은 7174명... 학교수도 감소

올해 광주·전남지역 유·초·중등생이 전년보다 1만537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만여개 유·초·중·고교와 대학의 학생·교원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613만6793명으로 지난해 대비 17만2930명(2.7%)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해 21만5052명에서 올해 20만6856명으로 8196명(3.8%) 줄었고, 전남은 22만1111명에서 21만3937명으로 7174명(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평균보다 감소 폭이 컸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생은 6.2% 줄었고,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8.3% 줄었다. 초·중학생만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른바 '흑룡파' 해로 출생아수가 많았던 2012년생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학생이 줄면서 전국 학교 수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총 2만809곳으로 지난해보다 158곳(0.8%) 줄었다.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올해 13만7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였다. 전년 대비 12.3%(1만5013명) 늘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달뜨기 05:22
해질 19:03 달뜨기 19:14

구름 낀 가을하늘

구름 낀 새벽에 일부내륙 비 오는 곳 있었다.

| | | | | | |
|----|-------|-------|-----|-------|-------|
| 광주 | 구름 많음 | 20/28 | 보성 | 구름 많음 | 18/27 |
| 목포 | 구름 많음 | 22/27 | 순천 | 구름 많음 | 21/29 |
| 여수 | 구름 많음 | 22/28 | 영광 | 구름 많음 | 20/27 |
| 나주 | 구름 많음 | 19/27 | 진도 | 구름 많음 | 20/26 |
| 완도 | 구름 많음 | 21/28 | 전주 | 비온뒤 갬 | 20/27 |
| 구례 | 구름 많음 | 20/28 | 군산 | 구름 많음 | 20/27 |
| 강진 | 구름 많음 | 19/28 | 남원 | 비온뒤 갬 | 19/27 |
| 해남 | 구름 많음 | 19/28 | 축산도 | 구름 많음 | 21/25 |
| 장성 | 구름 많음 | 19/27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0 |
|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남해 앞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0 |
|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 북서~북 | 1.0~1.5 | 북서~북 | 0.5~1.5 |

◇ 생활지수

| | |
|-------|---|
| 경고 | ☀ |
| 식중독 | 🍴 |
| 매우 높음 | ☀ |
| 자외선 | ☀ |
| 좋음 | 👁 |
| 미세먼지 | 🌫 |

◇ 주간 날씨

| 31(토) | 9/1(일) | 2(월) | 3(화) | 4(수) | 5(목) | 6(금) |
|-------|--------|-------|-------|-------|-------|-------|
| ☀ | ☁ | ☁ | ☁ | ☁ | ☁ | ☁ |
| 19/28 | 20/27 | 21/26 | 21/27 | 22/28 | 22/28 | 22/29 |

광주·전남 일요일부터 비... 일주일간 내릴 듯

광주·전남지역에 일요일 오후부터 '가을잠마'가 시작된다. 이번 비는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주말동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일요일(9월 1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주 내내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중국에 생성된 사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사이에 저기압 정체 전선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마는 하루나 이틀 정도 비를 뿌리는 게 일반적이다. 30일과 31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겠으나, 새벽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0도·전남 18~22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8도·전남 26~29도로 분포되고,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9도·전남 17~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8도·전남 27~29도가 되겠다. /정병호 기자 jusbh@

남구, 치매가족 부양부담 줄이기 '헤아림 가족교실' 운영

광주시 남구가 치매환자 가족에게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29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치매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헤아림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정신행동 증상 및 위험요인 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비롯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의사 소통법 및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 수공예 및 유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헤아림 가족교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내달 2일부터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